

전북현대 김진수, 1년 만에 대표팀 복귀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출전 명단 발표 경고 누적 중국전 땔 수 없는 손흥민 원정길 함께할 듯

전북 현대 김진수가 1년 만에 슈틸라케 호에 합류한다.
울리 슈틸라케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말 치러지는 중국, 시리아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7차전에 나설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2연전은 한국의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가능할 중요한 무대다.
한국은 최종예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3승1무1패(승점 10)로 이란(3승2무·승점 11)에 이은 2위를 달리고 있다.
비교적 약체로 꼽히는 중국과 시리아를 상대로 2승을 거두어만 남은 일정을 순탄하게 치를 수 있다.
슈틸라케 감독은 익숙한 얼굴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 시티), 구자철, 이동원(FC 아우구스부르크) 등이 무난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곽태휘(서울), 홍정호(장수 수닝) 등 수비 라인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경고 누적으로 중국전에 땔 수 없는 손흥민은 일단 원정길에는 함께할 예정이다.
시리아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명단에 합류할 경우 다른 1명이 빠지게 된다.
독일 분데스리가 생활을 마치고 전북 현대로 돌아온 김진수는 지난해 3월24일 레바논전 이후 1년 만에 A매치 출전 기회를 잡았다.
전남 드래곤즈 미드필더 허용준은 생애 첫 A대표팀 승선의 기회를 누렸다.
선수단은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소집돼 오후 8시20분 항공편을 통해 중국 원정길에 오른다.
24일 귀국한 뒤에는 시리아전 준비에 돌입한다.
중국, 시리아전은 각각 23일 중국 창사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여자 축구대표팀, 북한전 출전 명단 발표

사상 첫 평양 원정길에 오르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최정예 군단을 꾸렸다.
윤덕여 감독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전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은 4월3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을 치른다.
북한 우즈베키스탄, 홍콩, 인도와 경합을 벌여 1위에 올라야만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아시안컵 본선에 오를 수 있다.
세대교체를 준비하던 윤 감독은 예상과 달리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북한과 같은 조에 묶이자 예전 주축 선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조소현과 전가을, 김정미(이상 인천 현대제철), 유영아(구미 스포츠토토) 등 30대 선수들이 대거 승선했다.
윤 감독은 "본의 아니게 북한과 경기를 하게 돼 경험 있고 팀의 중심을 잡아줬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했다. 중요한 대회인 만큼 선발된 선수들이 많은 사명감을 갖고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다만 베테랑 수비수 심서연(이천대교)은 부상으로 빠졌다. 윤 감독은 "재활을 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예선전은 한국과 북한의 2대전이 될 공산이 크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국은 북한과의 역대 전적에서 1승2무1패로 크게 밀린다.
윤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이 북한에 대한 적응력이 생겼다. 스타일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결과만 보더라도 1-1로 비긴 아쉬움이 있다. 선수들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덕여호는 20일부터 목포축구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유소년U-12, 일본 가시마와 교류전

가시마 선수단, 3박 4일간 일정으로 전북 선수단과 우호 다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의 유소년 U-12 육성반이 일본 J리그 가시마 애틀러스 유소년과 교류전을 가졌다.
가시마 애틀러스 U-12 팀은 지난해 전북의 권순태 선수가 이적한 팀의 산하 유소년 팀으로 올해 2년째 교류를 맺고 있다.
가시마 선수단은 11일(토) 전주에 도착해 14일(화)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머물며 전북현대 U-12 팀과의 우호를 다졌다.
이번 교류전이 더욱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다.
가시마 선수들은 일정 중 11일~12일 이틀간 전북현대 유소년 선수들의 집에서 함께 숙식했다.
홈스테이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전 경기 일정은 12일과 13일 이

틀에 걸쳐 치러지며 전북현대 U-12 가시마 애틀러스 U-12 스포츠복스 총 3팀이 참여했다.
향후 7월에는 전북현대 유소년 팀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축구 외에도 전라북도의 멋과 맛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전라북도청 관광총괄과에서 선수단에 게 보내 명소인 진안 마이산과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안내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했다.
선수들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축구를 통해서 양 팀 간의 우호를 다지고 좋은 경험을 얻었다. 앞으로도 해외 유수의 팀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전북 유소년으로 발전시키겠다. 우리 선수들에게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키워주고 싶다"며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의 유소년 U-12 육성반이 일본 J리그 가시마 애틀러스 유소년과 교류전을 가졌다.

고창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출신 김민지 독일 세계주니어 선수권 대회 2회 연속 우승

고창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출신 김민지(전주성심여고3) 선수가 최근 2017 독일 세계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복식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지 선수는 성아영(유봉여고3) 선수와 한조를 이뤄 경기에 나섰으며 결승전에서 린 이어나가나츠(일본) 조를 2-0(21-16, 21-14)로 꺾고 값진 우승의 기쁨을 얻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달 초(3.1 ~ 3.5) 열린 2017 네덜란드 세계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서 군민들에게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했던 신승찬(삼성전기) 선수에 이어 지역 체육계의 자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김민지 선수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